

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10 중·일 관광객을 잡아라

# 中 순회 마케팅... 여행사 초청 팸투어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의 주요 타깃은 인트라바운드(Intrabound)다. 여행업계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객을 인바운드(Inbound),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광객을 아웃바운드(Outbound)라고 부른다. 인트라바운드는 국내를 관광하는 내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 새로운 개념이다. 지역방문의 해는 해외로 향하는 이들 내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돌려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국내로 여행오는 외국인들보다 많이 관광수지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내국인 관광객 유치 못지 않게 동북아 등 주변국의 관광 수요를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관광의 양대 인바운드 시장은 일본과 중국이다. 올해는 특히 ‘한·일관광교류의 해’인데다 베이징 올림픽(8월 8일~24일)이 예정돼 있어 양국 관광객 유치에 절호의 기회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각 지자체도 이들 두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가 한일 양국정부가 공식 지정한 ‘한·일관광교류의 해’인 점을 활용하여 지난해 한·일교류대축제를 시작으로 4월 한·일관광교류의 해 선포식, 7~8월 한·일 청소년교류 페스타, 9월 한·일관광교류의 밤 등 연중 대형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과 함께 외래객 유치 2대 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관광시장 공략을 위해 방한 비자 수속절차 개선, 저가상품 난립으로 인한 중국 단체관광객의 방한 만족도 저하인 해소, 재방문 증대를 위한 ‘우수인증상품’ 개발을 통해 올해 125만명의 중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인 방한 관광객은 93년에 약 10만명,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단체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개방한 98년에는 21만명으로 늘었다. 특히 한·중교류 15주년인 지난 2007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중국·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주요 도시 순회 관광마케팅 활동에 나섰다. 시는 이 기간동안 베이징(北京), 선양(瀋陽), 청두(成都), 상하이(上海)지역 등을 방문해 현지 여행업체 및 언론사, 광주관광 취향 항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광 간담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활동을 벌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선양 요녕세계여행사와 상하이 양자국제여행사의 상품판매를 촉진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신규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베이징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운항 중인 광주~베이징간 정기노선 이용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북경 중국국제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광주권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에 참가한 일본 전문여행사인 (주)전국관광의 여행상품 기획 담당자들이 무등산 중심사 벽면의 행화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신규 관광상품 적극 개발 유치 인센티브 크게 늘려 도로표지판 등 한자 병기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권 관광지 및 광주비엔날레 및 김치축제 등 대형 축제들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광주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안송 등을 작곡한 정윤성 선생이 태어난 고향이며,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중국대표팀이 월드컵 첫 게임을 치른 곳이란 점을 부각시켜 중국인들의 관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5~26일 일본인 관광객 전담여행사인 (주)전국관광의 상품기획담당자와 가이드 8명을 초청해 광주권내 관광지와 체험시설, 숙박, 음식, 쇼핑시설을 돌아보는 팸투어를 벌였다. 지난달 12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와 전국관광은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일본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 오는 4월 하순에 일본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에서 개최되는 광주·전남 지자체워크 기간 중 적극 홍보·판매할 계획이다. 상품 개발은 1948년을 전후로 한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일본 단카이(團塊)세대 유치와 농민·청소년 교류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다.

전남도 역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관광상품, 중국의 기업체 및 공무원 연수,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한 한류 웰빙 체험, 한류와 한국의 계절별 꽃·단풍·눈 등 대만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에 대해서는 대형버스 기준 1일 1대당 20만원, 도내 관광지 입장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관광지 도로 표지판의 경우 영어 이외에 한자를 병기해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관광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일본·중국인 관광객을 찾기 위한 우리의 수용태세가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입에 맞는 먹을거리와 볼거리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싸구려 저가 상품이 판치면서 숙소와 음식, 코스면에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선에 힘을 쏟아야할 부분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주빈 지자체 체로 참여,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했다.

## “맛과 멋의 고장, 남도로 오세요”

광주시·전남도 ‘내나라 여행박람회’ 주빈 지자체 참여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8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광주·전남 관광홍보관을 설치, ‘광주·전남 방문의 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등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여행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의 관광홍보박람회.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아 전국에서 260여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가, 600여개의 전시·홍보부스를 설치하고 10만여 관람객의 오

감(五感) 사로잡기 경쟁을 벌였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이번 박람회의 주빈 지자체로 초청돼 지역 여행 정보와 특산물 등을 선보이며 한국관광공사와 공동 홍보마케팅을 벌였다.

지난해 2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던 광주시는 올해 부스 숫자를 10개로 늘려 ‘광주의 멋과 맛을 찾아서’ 등 6종 1만5천부의 홍보물과 농업특산물 홍보책자를 배부했다. 아울러 광주비엔날레와 제4회 한국청소년박람회, 광주김치대축제, 임방울축제, 정음성 국제음악제, 충장로축제 등을 적극 홍보했다.

##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행사장

## ‘광주·전남 방문의 해’ 현수막 홍보

광주시 지역 행사장 홍보 강화



광주시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3·1절 마라톤대회’ 등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이벤트에 적극 참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광과 등 도시마케팅본부 소속 직원 14명은 지난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방문의 해 행사와 여행상품 등을 적극 홍보했다.

직원들은 이날 새마을협의회·해병대전우회·자원봉사자·시민리포터 등 7개 단체 80여명과 함께 1만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광주·전남여행 안내서인 ‘남도의 맛과 멋’ 홍보책자와 관광지도, 투어캘리 안내문을 배부했다. 마라톤터너들에게는 광주시 수돗물 브랜드인 ‘빛여울수(水)’를 함께 제공했다.

아울러 올들어 광주시가 심혈을 쏟고 있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홍보활동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 열린 월드컵 경기장 전면과 전광판 하단에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사진)이, 본부석 맞은편 관람석에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10여개의 대형 프랭카드가 내걸려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터너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베트남 국제결혼

**국제결혼! 선택이 중요합니다**

**본사만약 정비**

1. 베트남 현지에서 100% 베트남인입니다.
2.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100% 베트남인입니다.
3.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100% 베트남인입니다.
4.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100% 베트남인입니다.
5.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100% 베트남인입니다.
6. 본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100% 베트남인입니다.

**900만원대로 배율을 맞이하세요**

**아오자이국제결혼**

062) 232-8966  
010-5256-8966

###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영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1. 선영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2. 선영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3. 선영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010-5256-8966